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정도의 거마비는 비과세소득임

상담실 백종훈 차장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사외이사나 비상근임원 등에게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비용을 흔히 거마비라고 하는데, 실무상 이들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처리를 할 것인가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것인가 등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등의 제수당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 비상근임원 등에게 회의참석차 지급하는 실비정도의 체재비 등은 비과세임

임원중에는 항시 상주하지 않고 근무가능시간의 일부나 특정업무에 대하여만 실무적으로 간여하는 비상근임원이나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대주주와 관련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라도 회사 정관에 의해 근무일수나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곤 한다. 이때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대가이면 당연히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면 된다.

하지만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세법상 임원은 등기여부 상관없이 직무에 실질적 종사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일반적으로 임원이라 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회사의 정관이나 지급규정 등에 의한 급여나 상여금의 지급은 인건비로서 손금산입하며, 실비변상적 급여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비과세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의 임원은 법인의 이사회구성원은 물론 감사 및 이사·감사 등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

하는 자로 등기·비등기여부, 법정임원 여부, 상근·비상근여부 또는 직책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직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 직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이면 회사내부나 외부의 구분없이 이사·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는 모두 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라도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면 비과세할 수가 있다(서이 46012-11401, 2002. 7.19 ; 법인 22601-1121, 1991. 6. 3).

그러나 실비변상적 급여라도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만약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이상이라면 그 초과금액은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 함은 합리적 기준하에서 통용된 실비로서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체재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지만 이사회 등 참석의 경우 왕복차비와 식사대 정도의 실비로서 10만원~15만원 내외가 될 것이다.

따라서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그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석차 방문시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교통비 등의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면 된다.

####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세무처리◇

구분	세무상처리	비고
근무일수나 기여도에 따른 보수	근로소득으로 처리	근무일수나 기여도에 비해 너무 과하거나 비상근임원이 대주주나 친인척 등이면 배당소득으로 처리(손금불산입)
상여금 지급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한 지급기준 범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지급기준 초과지급은 배당소득으로 처리(손금불산입)
퇴직금 지급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한 지급기준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	지급기준 초과지급은 배당소득으로 손금불산입함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석에 따른 거마비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교통비(항공료 등)는 비과세처리	초과과다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근무와는 별도로 고문, 강사료 지급	자유직업소득으로 사업소득처리(3.3%로 원천징수)	실무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함. 그러나 고용관계 없는 경우는 일시적 용역으로 기타소득으로도 처리함